

 교육부				<h1>설명자료</h1> <p>2019. 11. 14.(목) 배포</p>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홍보담당관	담당자	과 장 사무관	최성부 (☎ 044-203-6575) 김영현 (☎ 044-203-6572)	

교육부 차관의 발언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표현한 것입니다.

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조선일보(유소연 기자) / '19. 11. 14.(목)

제목: “교육부 차관과 2600억 원”

〈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〉

-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교육부 차관의 발언 내용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다.
- 교육부는 지난 11월 11일(월) 교육부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
 - 간담회 도중 비공식적 환담 자리에서 자사고·특목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관해 교육부 차관과 조선일보 유소연 기자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.
 - 기사에서 언급된 차관의 발언은 교육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을 바탕으로
 - 학부모의 관점에서 이번 정책을 바라봐 달라는 허심탄회한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.
 - 차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본의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출입기자단에게 전달하였습니다.
- 교육부는 앞으로 출입기자단과의 소통에 있어 신중을 기해 다양한 의견을 고르게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